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한다.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은 이유는 왜인가?

말했을 때, 머릿속에 그려지는 부정적인 결과가 내 눈앞에 그대로 나타날 것이 두려워서인가?
말했을 때, 나의 능력을 초과하는 현실에 닿지 못할 좌절감 때문인가?

그렇다면, 말을 안하고 그냥 넘어가면 무엇이 바뀌는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알지 못할 것이다.

나의 밝은 미래는 더 이상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해야한다. 말하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무엇이 적절했는지 배워야 한다.

그 이후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시 말했을 때, 나는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